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10/11

2015 | Vol. 529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Photo: Kazuhisa Ishikawa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성공적으로 개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이 9월 19일(토) 신촌 연세로와 9월 20일(일) 코엑스에서 각각 3만명과 6만명 총 9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9월 19일 신촌 연세로 행사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공연단체의 퍼레이드와 무대공연이 이루어졌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는, 많은 관람객과 공연단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양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축제 본연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일본을 12차례 방문했으며, '통신(通信)'이란 서로 '신을 나누다'는 의미로서 양국의 평화와 선린우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퍼레이드는 취타대를 선두로 웅장한 조선통신사행렬이 재현되었으며, 상명 한오름무용단의 화려한 전통무용, 광명시립농악대의 신명 나는 퍼레이드에 이어,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갔던 일본 각 지역에서 참가한 전통공연팀의 퍼레이드가 있었다. 특히 양국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요사코이 아리랑이 대미를 장식하며 문화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조선통신사 부스에서는 '조선통신사행렬(두루마리) 그림'을 비롯하여, 현재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행사' 소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개인작가가 제작한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한 인형 전시'와 '조선통신사 종이체험' 등이 이루어졌다.

9월 20일 코엑스 행사에는 강신호 한일축제한마당 한국측 명예실행위원장, 박삼구 한일축제한마당 한국측 실행위원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한일축제한마당 일본측 실행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벳쇼 코로(別所浩郎) 주한일본대



사, 김태환 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재무성 부대신 등 수많은 내빈을 맞이하여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이루어진 양국간 최대 문화교류의 자리를 함께했다. 박삼구 실행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한일축제한마당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모든 분야에 걸쳐 진정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 축제는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민이 서로 손잡고 함께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나고 세계시민으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쌓아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일본인학교와 서울소년소녀합창단의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공연, 히다노 슈퍼다이크 그룹과 아마도 이자람밴드의 합동공연, 에픽하이와 사시다 후미야의 스페셜 콘서트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고 지역은 물론, 현재 활발하게 자매도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참여한 출연진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지자체 · 기업부스와 체험 · 이벤트부스, 푸드부스 등 다양한 부스가 참여했으며, 특히 올해는 〈B-1 그랑프리〉 부스가 참여하여 일본 음식 시식 등이 이루어졌다.



2015 대전 JAPAN WEEK



JAPAN WEEK는 1998년 일한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방에서의 문화교류 촉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며 시작된 행사로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매년 혹은 격년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육과 문화의 도시 대전광역시에서 JAPAN WEEK를 개최한다. 대전에서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JAPAN WEEK로 전시, 강연회, 공연, 워크숍 등 일본의 다채로운 문화를 한번에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간 10월 29일(목)~11월 8일(일) **장소** 대전광역시 일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밭대학교, 동우화인켐㈜, 일본국제교류기금, KBS대전방송총국, 대전일보사, 대전국제교류센터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 123)

전시

■ 일본의 세시풍속전 ■ 한일영화 홍보전단 비교전시회

일시 10월 29일(목)~11월 8일(일) 10:00~18:00(기간 중 무휴), 무료관람

장소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1F 전시실 · 중회의장 · 로비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한남대학교

강연회

■ 벅소 코로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특별강연회

• 충남대학교 강연회

일시 및 장소 11월 3일(화) 14:00,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

• 한남대학교 강연회

일시 및 장소 11월 4일(수) 10:00,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서의필홀

■ 사토 마사루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강연회

일시 및 장소 11월 4일(수) 15:00,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 101호

대전지역 COOL JAPAN 리포터 임명식

일시 및 장소 11월 3일(화) 15:30,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



공연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 곶나기 유키 콘서트

1999년 데뷔 이후 특유의 가창력으로 10여년간 정상급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곶나기 유키(小柳ゆき)의 특별콘서트. 선착순 입장(무료관람, 자유석).

일시 및 장소 11월 3일(화) 18:00,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서의필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한남대학교, JBOX엔터테인먼트

■ 일본의 북 - 바치홀릭 SPECIAL 콘서트

일본의 전통 북, 노래, 퍼포먼스 등을 통해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주목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구성된 바치홀릭의 특별공연.

[프레공연(미니콘서트)]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토) 12:00, 보라매공원 특설무대(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자유관람, 무료공연

[본공연]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토) 17:0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관람방법 이메일 예약신청(무료관람, 자유석)

예약방법 ①공연명 : 일본의 북 바치홀릭 콘서트 명기 ②예약자 성명 ③관람 인원수(다수 신청가능) ④휴대전화번호 기입 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예약 신청.

예약 신청 기간 10월 19일(월)~10월 29일(목)

예약 신청 이메일 주소 event@so.mofa.go.jp(접수 완료시 회신 메일 송부)

■ 전승되는 에도(江戸)의 기예 - 일본의 전통예능 한국공연

일시 및 장소 11월 6일(금) 19:30,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 뿌리홀

선착순 입장(무료관람, 자유석)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체험/워크숍

■ 일본인형 책갈피 만들기 & 전통의상 및 완구체험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토) 11:00~17:00, 보라매공원 / 선착순 무료

주최 대전광역시, 주한일본대사관

■ 기모노 기쓰케와 다도 워크숍

일시 및 장소 11월 6일(금) 14:00~16:30, 대전국제교류센터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대전국제교류센터,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참가 방법 이메일 예약 신청(대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www.dicc.or.kr에서 확인)

■ 다도 실연설명회

일시 및 장소 11월 7일(토) 11:00 · 14:00,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로비 / 자유관람
유학 · JET프로그램 ·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일본기업 설명회

■ 배재대학교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1월 4일(수) 16:00~18:00,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 101호

■ 한밭대학교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1월 5일(목) 10:00~12:00, 한밭대학교 S4동(인문사회대학) 207호

■ 충남대학교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1월 5일(목) 15:00~17:00,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

일본관광안내전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토) 11:00~17:00, 보라매공원(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주최 대전광역시, 주한일본대사관 협력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2015 부산 JAPAN WEEK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일본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부산광역시에서 공연, 전시, 워크숍, 세미나 등 일본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2015 부산 JAPAN WEEK'를 개최한다. 선착순 무료입장.

기간 10월 22일(목)~11월 8일(일) 장소 부산광역시 일원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립미술관, (사)부산한일친선협회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사)부산한일교류센터, (사)부산국제교류협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동우화인켐(주),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강연회

■ 마츠이 사다오(松井貞夫)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화) 13:30,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대회의실

공연

■ 박준영 콘서트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목) 16: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선착순 입장)

■ 일본의 북 - 바치홀릭 SPECIAL 콘서트

바치홀릭 공연과 아울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과의 합동무대.
선착순 입장(초대권 소지자 우선 입장).

일시 및 장소 10월 30일(금) 19: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 고야나기 유키 콘서트

일시 및 장소 11월 4일(수) 19: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선착순 입장)

■ 전승되는 에도(江戸)의 기예 - 일본 전통예능 한국공연

일본인에게 친숙한 엔게이(演芸) 가운데 다이카구라(太神楽, 곡예), 교쿠고마(曲独楽, 팽이 돌리기), 시코즈쓰(紙工術, 종이오리기), 데즈마(手廻, 마술) 등 각 분야 1인자를 초청하여 공연한다. 선착순 입장.

일시 및 장소 11월 5일(목) 15:00,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회의실



워크숍

■ 일본 꽃꽂이 워크숍

박영순 이케노보(池坊) 서울지부장을 초청하여 일본 꽃꽂이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들의 꽃꽂이 체험을 진행한다. 선착순 전화 신청(051-410-6124~6)

일시 10월 31일(토) 11:00~12:30, 14:30~16:00

장소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세미나실

참가 한국 국적으로 고등학생 이상, 1회(11시) 30명 / 2회(2시 30분) 30명

■ 다쓰미 만지로 초청 노(能) 워크숍

2012년 일본문화청 문화교류사를 역임한 시테가타 호쇼류 노가쿠시(シテ方宝生流 能楽師)인 다쓰미 만지로(辰巳満次郎) 씨의 노(能) 시범과 해설이 진행된다.

일시 11월 6일(금) 14:00 장소 부경대학교 미래관 소민홀



특집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일본 다도 시연 및 시음회

일본 다도의 최대 유파인 우라센케(裏千家)의 정귀순 우라센케 부산지부 부회장이 다도 시연과 시음을 진행한다. 선착순 전화 신청(051-410-6124~6)

일시 11월 7일(토) 14:00~15:00, 16:00~17: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도실 덕심암(관 102-2)

참가 한국 국적으로 고등학생 이상, 1회(2시) 35명 / 2회(4시) 35명

설명회

■일본유학, 워킹홀리데이, JET 프로그램 설명회

일시 10월 28일(수) 14:00~16: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F관 410(대학본부)

세미나

■조선통신사 ~부산과 쓰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세미나

일시 11월 2일(월) 14:00~17:00 장소 부경대학교 미래관 소민홀

전시회

■일본의 공예와 민예(도호쿠(東北)의 美)

일시 10월 22일(목)~11월 1일(일) 10:00~18:00(26일 휴관)

장소 용두산미술전시관

■히라바야시 가쓰미(平林克己) 사진전 '하루(陽)'

-동북 지방에 떠오른 희망의 빛-

일시 10월 22일(목)~11월 1일(일) 10:00~18:00(26일 휴관)

장소 용두산미술전시관

기타

■이쓰키 아키라(五木あきら) 초청 한일 코스프레 교류회

일시 11월 8일(일) 14:00~17:30 장소 BEXCO 제2전시관 122회의실



2015 제주 JAPAN WEEK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일본 전통예능 한국공연을 비롯하여 10월 제 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일본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일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케와 관광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승되는 에도(江戸)의 기예 - 일본 전통예능 한국공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과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으로 일본 전통예능 한국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전부터 일본인에게 친숙한 '엔게이(演芸)'를 소개한다. 입장무료.

일시 11월 3일(화) 19:00~21:00 장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4회 고등학생 일본어 일본문화 퀴즈대회

'제9회 제주 글로벌 외국어 축제'의 일환으로 제4회 고등학생 일본어 일본문화 퀴즈대회가 개최된다. 상위 3팀에게는 일본정부초청으로 9박 10일의 방일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일시 10월 23일(금) 10:30~12:30 장소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제주국제교육정보원) 주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일본어교과교육연구회

일본관광홍보부스 운영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5 제주 올레 걷기대회' 행사장에서 일본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일본의 각지방을 대표하는 사케와 시즈오카산 녹차를 무료 제공한다. 또한 일본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팸플릿도 비치할 예정이다.

일시 10월 31일(토) 14:00~18:00 장소 해녀박물관 일대



일한 외교장관회담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참석자 : 일본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외, 한국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외).



1. 기시다 외무대신 취임 이래 8번째의 일한 외교장관회담이다. 8월 말레이시아에서의 회담에 이어, 일한관계 진전을 위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2. (1)모두에 기시다 외무대신은 국제회의에서 외교장관회담이 정례화된 것을 평가하고, 9월 양국 수도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이 성대히 개최되어 좋았다면서, 윤병세 장관이 서울에서 개최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자신도 도쿄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양국의 굳건한 유대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3개월 남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윤병세 장관은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들어 4번째 외교장관회담인데 기시다 외무대신과 긴밀하게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3. (1)일한 관계에 대해, 두 외교장관은 다양한 차원과 분야에서 대화를 거듭하고 관계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기시다 외무대신은 미국을 포함해서 안보분야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일본의 평화안전법제(PDF)의 의의와 지역·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한층 기여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2)일한중 정상회의에 대해 윤 장관은 의장국으로서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정상회의 석상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일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3)일한중 정상회의 시의 일한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아베 총리는 일한중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윤 장관에게 전했다.
4. 일한간 현안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구민간인 징용'을 둘러싼 재판, 일본산 수산물수입규제 강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일한미 외교장관회의

9월 29일 8시 30분(뉴욕 시간)부터 약 4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장)과 일한미 외교장관회의를 실시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한편 이전 일한미 외교장관회의는 2014년 8월 10일 미안마의 네피도에서 실시했다).



총론 모두에 기시다 외무대신은 북한문제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지역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은 크다. 일한미 3국 외교장관이 약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북한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및 전세계적인 중요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일한미 3국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일한미 3국이 북한문제와 안보분야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한층 긴밀히 협력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북한문제 3국 장관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인공위성’이라 칭하더라도)나 핵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북한에 도발 행위의 자제, 안보리 결의나 6자 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북관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납치문제를 비롯하여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일한미 3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 및 지역경제 3국 장관은 기후변화나 국제보건, 해양문제 같은 전세계적인 협력과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문제도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남도 순천시와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자매도시 교류

전라남도 순천시와 가고시마현 이즈미시(鹿児島県 出水市)는 2009년 9월 28일 '이즈미시와 대한민국 순천시의 두루미 보호 등을 위한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 체결 후, 2012년 11월 13일에는 자매도시명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두루미 보호, 청소년교류사업, 물산교류 등 여러 면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소개한다.

순천시와 이즈미시의 교류의 계기

2003년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200여 마리의 두루미를 보호하고 순천만에서 '생태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순천시장인 이즈미시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9년 두루미 보호와 관광발전을 목적으로 두루미 보호 등을 위한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두루미 교류뿐만 아니라, 두 도시의 교류를 위해 2012년 11월 13일 이즈미 시장 등이 순천시를 방문하여 순천시와 자매도시명약을 체결했다.

교류 역사

행정교류로는 두 도시가 두루미에 관한 심포지엄 등 상호 방문을 실시하거나 순천시에서 개최된 '갈대축제'에 이즈미 시장, 의장 및 교육장이 초청되어 참가했다. 처음에는 두루미 관련 교류가 중심이었지만, 2012년 자매도시명약체결 이후 청소년교류사업으로 상호 홈스테이를 실시하거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이즈미시 원아와 아동의 그림과 이즈미 조경건설업협회가 조성한 정원을 출전했다. 이즈미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산업축제에 순천시가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교류하고 있다.



순천시청소년, 이즈미시에서 문화체험

앞으로의 교류

2016년 3월에는 이즈미시의 시제 시행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이 행사에 순천시 시장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간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이 각각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이 어온 교류를 소중히 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소개

일본 남부 규슈 가고시마현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시라누이해(不知火海), 남쪽으로 시비(紫尾) 산맥을 바라보며 북쪽을 향해 평야가 펼쳐지는 풍요로운 전원도시다.

1954년 4월 1일 이즈미정(出水町)과 고메노쓰정(米ノ津町)이 합병하며 이즈미시로 시제를 시행했다. 같은 해 10월 9일 오카와우치촌(大川内村)을 편입, 2006년 3월 13일 이즈미시(出水市), 다카오노정(高尾野町), 노다정(野田町)을 합병하며 새롭게 이즈미시가 탄생했다. 이로써 인구는 약 55,000명, 면적은 330km²이 되었다.

시내에는 2006년 개통된 규슈 신칸센 정차역이 있으며, 앞으로도 남큐슈 서부자동차도로를 비롯해 가고시마 공항의 접근 도로가 될 기타사쓰마 횡단도로 등 고속교통망의 정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내에는 에도시대부터 400년 이상 이어진 이즈미후모토(出水麓) 무사마을이 있는데,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거리 풍경이 현대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관광 우차나 다도체험, 기모노 입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흑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세계 제일의 월동지로 알려져 매년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 지방에서 몽골, 한반도를 경유하여 10,000여 마리의 두루미가 찾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두루미 전문박물관 '크레인 파크 이즈미'가 있어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조류 연구자가 찾아오며, 동아시아 두루미 네트워크 국제회의, 일본 국내의 각종 조류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등 학술적으로도 주목을 끄는 마을이기도 하다.

온화한 기후로 온슈(温州) 밀감 등 감귤류를 비롯하여 많은 농산물 재배는 물론 소, 돼지, 닭의 축산업도 활발하며 특히 닭고기와 계란의 산출액은 일본 제 2위를 자랑한다.

2011년에는 현지의 미식으로 신선한 닭고기와 계란을 사용한 '이즈미 오야코 스테이크 밥'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약 30,000식이 판매되었으며, 타 지역 고객에게도 큰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식목산업도 번창하여 특히 도시의 상징이기도 한 나한송은 일본 국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순천시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콘테스트에서 이즈미시 정원이 실내정원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즈미시는 교류인구 증대에 따른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가민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중고교생의 수학여행 유치를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방문에도 대응하고 있다. 올 7월에는 일한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년방문단 66명이 이즈미시를 방문하여, 2박 3일의 민박을 체험하고 교류했다.

또한 '독서활동 일본 제1의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독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두가! 키워낸다 이즈미의 보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 기반인 가정교육에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루미 전문박물관, 크레인 파크 이즈미



이즈미 무사저택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이즈미 부스



이즈미시 대규모산업축제에 순천시 부스 출전

-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http://www.city.izumi.kagoshima.jp/>
- 문의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산업진흥부 관광교류과
- TEL +81-996-63-4059 • FAX +81-996-63-4059



이나무라가사키에서 바라본 에노시마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 도쿄도(東京都) 남쪽에 위치하며 하네다 공항에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곳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요코하마 등의 도시와 하코네 같은 온천지역 등 지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어, 어느 곳을 방문해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이번에는 가나가와현의 추천관광명소 중 2곳을 소개한다.



오야마 하사(下社)에서 바라본 전경

오야마

이세하라시(伊勢原市)에 있는 오야마(大山)는 미술랭 그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인기 관광 명소다. 오야마는 가나가와현 서부에 위치한 해발 1,252m의 산으로 단자와오야마 국립공원(丹沢大山国立公園)에 속해 있다.

오야마라는 이름은 산 정상에 모셔져 있는 ‘오야마 쓰미노오카미(大山祇神)’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오야마의 산길을 오르면 유명한 아후리(阿夫利) 신사를 찾을 수 있다. 오야마의 별명은 ‘아메후리야마(雨降り山, 비 오는 산)’라고 해서 기우제의 신으로 모셔져 왔다. 아후리 신사는 ‘하사(下社)’와 ‘본사(本社)’ 2개의 건물이 있으며, 등산로 중간에 하사가 있고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면 본사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오야마 아후리 신사에서 바라본 전망이 미술랭 그린 가이드에서 별 2개를 받았으며, 오야마 자체도 1개를 받았다. 미술랭 그린 가이드의 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야간조명이 켜진 오야마데라의 단풍



오야마 고마(팽이)



에노덴의 가마쿠라고교 앞역

- 3개 : 특별히 여행할 가치가 있다
- 2개 : 둘러볼 가치가 있다
- 1개 : 흥미롭다

즉, 오야마 아후리 신사는 ‘가나가와현에 오면 꼭 둘러볼 가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아후리 신사부터 하사까지는, 산 아래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약 1시간이지만, 길가에 있는 가게 등을 둘러보며 걸다 보면, 즐겁게 올라갈 수 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고마 참배길’이다. 고마(팽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장난감 중 하나인데, 오야마의 팽이는 유명해서 참배 길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곳도 있다.

오야마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아후리 신사의 하사부터 다시 1시간 30분 정도 걷는다.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로 등산용 의류 및 방한도구, 식료품과 물을 제대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 체력에 자신 있는 분은 꼭 정상까지 올라가서 멋진 전망을 감상하기 바란다.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도 올 10월 1일부터 아후리 신사 하사 근처까지 케이블카(소요시간 6분)가 운행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하기 바란다.

가마쿠라 · 에노시마

다음은 해안관광지인 가마쿠라(鎌倉) · 에노시마(江の島) 지역을 소개한다. 명승지로 알려진 에노시마에는 많은 관광명소가 있으며,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선 메인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또한 에노시마는 올 6월 도쿄 2020 올림픽 · 파라림픽 경기대회의 요트 경기장으로 결정되어 향후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게 될 명소다.

가마쿠라는 나라 · 교토와 더불어 정치의 중심지로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온 전통있는 도시다. 제철 꽃들로 수 놓여진 유서 깊은 사찰이나 해안에서 바라본 후지산과 석양 등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어 일본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에노시마와 가마쿠라는 인접해 있어 ‘에노시마 전철’이라는 거리를 달리는 전차를 타고 산책할 것을 추천한다. 에노시마 전철은 가마쿠라역에서 후지사와(藤沢)역까지 총10km를 잇고 있으며, 민가의 바로 옆을 통과한다. ‘에노덴(江ノ電)’이라는 애칭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 받고 있으며, 이 북고적인 차량을 한 번 타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에노덴은 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일반 열차보다 천천히 운행하지만, 느긋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가마쿠라 · 에노시마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에노덴은 해변을 지나는 기차라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좌석을 추천한다. 이나무라가사키(稲村ガ崎)부터 고시고에(腰越)까지 차창으로 쇼난(湘南) 바다와 에노시마, 후지산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에노시마 전철 선로 근처에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무심코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마쿠라고교 앞역 플랫폼에서는 수평선까지 시야 가득 바다가 펼쳐진다. 마음에 드는 경치가 있으면 전철에서 내려 그 절경을 즐기는 것도 좋다. 또한 가마쿠라고교 앞역은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장면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

가나가와현은 이번에 소개한 관광지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으니, 꼭 한번 방문해서 그 매력을 실감해보기 바란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린다.

관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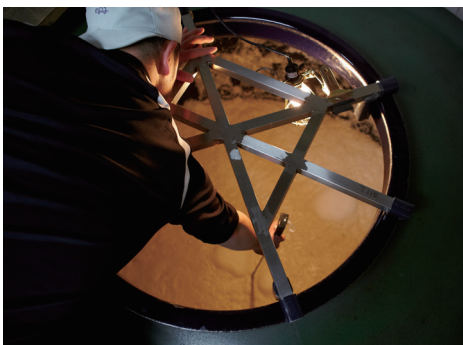
<http://kanagawa-travel-info.com/korean/>

※기사작성 협력 : 방일외국인 대상 웹 매거진 MATCHA

<http://mcha.jp/>

(협력: CLAIR, Seoul)

간토지방의 사케



간토지방(関東地方)은 일본의 혼슈 남동부에 위치하며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치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1도(都) 6현(県)으로 구성된다. 면적은 일본 전국의 약 8.5%, 일본 인구의 2분의 1(약 6000 만 명)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기도 하다.

북서쪽에는 2000m급 산악지대, 동남쪽에는 태평양이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 최대의 간토평야가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여름은 강우량이 많고, 겨울은 건조한 태평양측 기후를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제 각각 다른 기후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기후의 간토지방에서 빚어지는 니혼슈(사케)는 후지산(富士山), 아카기산(赤城山), 쓰쿠바산(筑波山) 등지의 맑은 자연약수와 기누가와(鬼怒川), 나가가와(中川), 다마가와(多摩川) 등의 천연복류수가 술을 빚는 원료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주조호적미(사케를 빚는데 가장 적합한 주조용 쌀)' 개발과 주조용 쌀의 재배 연구를 거듭하여 현지 원료미를 사용한 주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토지방 사케의 주조 역사를 보면, 에도막부(1603~1867)(현재의 도쿄)가 들어서고 당시 인구가 100만을 넘는 큰 도시를 이루면서, 사케 수요도 늘어나 많은 양조장이 개업, 선박을 이용하여 효고현(兵庫県), 교토부(京都府) 등의 지방으로 판로를 넓혔다고 한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자연의 위험성도 있었고, 특히 제일 큰 문제점은 자금(사케 판매이익)이 서부지방으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에도막부의 한 원로가 간토지방에서도 사케 빚기를 검토, 당시 쇼야(庄屋)라는 간토지방의 높은 관료에게 매년 쌀을 봉납하고 사케 양조를 요청하면서 주조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간토지방 양조장의 주조활동은 대부분 에도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도쿄에서도 메이지 시대에는 46개 양조장(가쓰시카구(葛飾区), 에도가와구(江戸川区) 등)이 존재했지만, 간토 대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20여개로 줄었고, 현재 10개 양조장만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예로부터 간토지방은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양조장이 창업했으며, 에도(도쿄)인의 취향에 맞춰 담백하고 깨끗하면서도 드라이한 사케를 에치고(越後)와 남부(南部) 토지(杜氏, 각지방의 사케 장인의 부류)가 주조했다. 현재는 간토지방의 젊은 현지 토지

(현지 장인)가 활동하는 양조장이 늘면서 다양한 풍미의 사케를 빚고 있다.

간토지방 각 지역별 주조의 특징과 양조장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은 간토지방에서 양조장이 가장 많은 곳(60곳)이다. 이곳에서는 오리지널 주조 호적미 ‘히타치니시키(ひたち錦)’를 사용하며 구지가와(久慈川), 나카가와(那珂川), 쓰쿠바, 도네가와(利根川), 기누가와(鬼怒川) 5곳의 맑은 하류의 자연수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순수 이바라키 사케’를 만들고 있다.

이소쿠라주조(磯蔵酒造-이바라키현 가사마시(笠間市))



1868년 창업. 이나다(稲田) 지구는 예로부터 벼농사가 활발하여 이나노사토(稲の里, 벼의 고향)라 불렸으며, 일본 최대의 화강암 지대에서 솟아나는 양질의 자연수를 사용하여 술을 빚고 있다. ‘현지의 자연수와 쌀로 술을 빚어, 자기 고장에서 마시자’라는 고집에서 ‘이나사토(稲里)’라 명명하고, ‘쌀 본연의 맛과 향을 지향하며, 일본 술다운 일본 술’을 빚고 있다. 계절마다 신선한 향미를 전하는 ‘이나사토 정방(定番)출하상품’과 가열, 여과, 가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생주 ‘시보타만마(しばたまんま) 출하상품’이 대표적인 사케로 유명하며 ‘신선한 주질’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곳 양조장의 사케는 이바라키현에서만 맛 볼 수 있다.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에는 아라가와(荒川), 도네가와(利根川)라는 2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으며, 각 양조장에서는 이 두 강의 천연복류수를 사용

하여 술을 빚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이타마현의 수질은 연수라 사케의 맛도 부드러우며 입안에서 편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신카메주조(神亀酒造-사이타마현 하스다(蓮田))



1848년 창업. 예로부터 양조장 인근에 위치한 ‘천신의 연못(天神の池)’에 살던 거북을 ‘신의 신하 거북’이라 했는데, 사케 이름도 여기서 따와 ‘신카메(神亀)’라 명명했다고 한다.

1987년 모든 사케를 ‘준마이슈’로 전향하여 ‘최초로 전량 준마이슈 제조양조장’으로 변신했다. ‘준마이슈의 최고봉’이라는 전설적인 양조장으로도 유명하다.

치치부계 아라카와의 경도가 높은 복류수를 원료수로 사용하여, 깊고 풍부한 감칠 맛이 입안 가득 전해준다. 3년 숙성과 출하가 기본방침이며, 특히 간자케(데움 주)로서 준마이슈 사케의 최고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식중주(식사하며 마시는 술)로서의 준마이슈’를 기본으로 활성탁주, 무여과생원주, 장기숙성주(5년 이상) 등 다채로운 준마이슈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유명 레스토랑과 요리점에서 식중주로서 최고 각광 받고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에도 선보이며 세계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은 일본 3대 명수의 하나인 단자와산(丹沢山)을 원천으로 사가미가와(相模川)와 사가와가와(酒匂川)에서 흐르는 풍부한 천연복류수를 이용한다. 두 하천을 사이에 두고 12곳의 양조장이 분포하고 있다. 비교적 소규모 양조장이 많지만, 일본 전국적으로 볼 때 가나가와현 양조장 전체의 평균 정미보합율(정미도정)은 매우 높은 편으로 고품질 수제 공정의

사케가 예로부터 전해지는 곳이 많다.

이즈미바시주조(泉水橋酒造-가나가와현 에비나(海老名))

1857년 창업. 가나가와현 곡창지역인 에비나 지역의 양조장이다. 현지의 농가와 함께 재배한 주조미와 탄자와의 천연복류수를 사용하고 있다. ‘술 빚기는 쌀 재배부터’라는 신념에서, 일본 전역에서도 보기 드물게 ‘자가 쌀재배 양조장’으로서 정미, 양조를 총괄, 제조하고 있다. 전량 준마이슈만 만들고 있다. 섬세하면서 드라이한 주질이 특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쿄도

도쿄에서 사케를 빚는다는 이미지는 거의 없지만, 에도시대부터 맑은 다마가와와 천연복류수와 지하수를 이용하여 에도 막부와 민중 중심의 양조장이 성행했다.

현재 10곳의 양조장이 있으며 다른 지역의 주조기술을 넘어선 간토 사케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다무라주조장(田村酒造場-도쿄도(홋사)(東京都 福生))



1822년 창업. 현재 18대 당주가 존재한다. 창업 당시 발견한 우물이 최고 양질의 치치부 오쿠타마(秩父奥多摩) 복류수의 중경수로서 수량도 풍부하고 최고의 명수였다. ‘맑은 물은 좋은 샘에서, 기쁨을 주는 원천’이라는 자연의 은총을 담아 사케명을 가센(嘉泉)이라 지었다. 세계정상회담 공식 만찬주, 전일본항(ANA) 퍼스트클래스 지정서비스 사케, 나리타공항 공식 면세 사케로도 유명하다.



감바군과 람바짱

감바군

감바군은 나가사키현(長崎県)의 ‘새’로서 금실 좋음의 상징이기도 한 원앙새가 모티브로 체육복 차림의 원기 왕성한 스포츠 소년이다.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나가사키의 맛있는 산해진미를 먹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성장했다.

나가사키의 ‘나가사키 감바람바(がんばらんば) 국민체육대회’의 경기 관전을 즐기며, 단지 응원에 그치지 않고 방문자에게 좋아하는 지역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다면, 더욱 즐거운 국민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가사키현의 가이드가 되어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했다.

감바군은 국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나가무라 호도(中村法道) 나가사키현 지사로부터 나가사키현 PR 단체인 ‘나가사키 감바람바타이(長崎がんばらんば隊)’ 대장으로 취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가사키현 활성화를 위해 나가사키현 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곳을 다니며 PR 활동을 하고 있다. 9월에는 서울도 방문했다.

• 좋아하는 말 감바람바(がんばらんば!)

나가사키 사투리로 ‘힘 내자!’는 뜻이다. 대장을 맡은 ‘나가사키 감바람바타이’에는 나가사키현 PR을 통해 나가사키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 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 성격 긍정적이며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

• 좋아하는 장소 나가사키의 질푸른 산과 파란 바다.

람바짱

감바군과 마찬가지로 원앙을 모티브로 하는 치어리딩 차림의 활기찬 소녀다.

‘람바짱’은 나가사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감바군’과는 소꿉 친구로서 ‘나가사키 감바람바 국민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는 감바군을 도와 일본 전역에서 물려오는 선수와 현민을 열심히 응원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후보인 나가사키 교회군 답사가 취미다. 감바군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람바짱은 나가사키 감바람바타이의 부대장으로서 앞으로도 나가사키현 PR을 위해 감바군과 함께 열심히 활동해갈 것이다.

- 좋아하는 말 활기차게 !
- 성격 언제나 밝고, 기운 없는 사람을 보면 응원하게 된다.
- 좋아하는 장소 나가사키의 역사문화가 가득한 거리.

감바군의 도전

도전 정신 넘치는 감바군은 여러 분야에서 도전해 왔다. 국민체육경기인 스카이다이빙, 카누, 승마 등에 도전하여 멋지게 성공했다! 그 모습은 You tube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하이퍼 감바군’으로 검색) 또한 최근에는 와다이코에도 도전했으며, 이 동영상은 감바군과 람바짱 Facebook에서도 볼 수 있다. 감바군과 람바짱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나 문화적인 도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감바군과 람바짱의 방(공식 홈페이지)

<http://www.pref.nagasaki.jp/koho/ganbaranba/index.html>

감바군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anbakun>

하이퍼 감바군(감바군의 도전)

<http://www.pref.nagasaki.jp/koho/ganbaranba/challenge/top.html>

나가사키현 소개

나가사키현은 규슈 서쪽에 위치하며 한국에서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외딴 섬과 해산물도 많으며 예로부터 해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짬뽕이나 싯포쿠 요리(卓袱料理, 일본화된 중식요리) 등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음식문화가 있다.

또한, 나가사키현에는 교회군과 기독교관련유산이 산재해 있는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노력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에도시대에 기독교가 탄압 받던 시절에도 나가사키에서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던 신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나가사키시의 야경은 홍콩, 모나코와 나란히 세계 3대 야경으로 인정받았다. 독특한 지형이 낳는 아름다운 야경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는 건 어떨까.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벨물리학상 오무라 사토시 씨와 가지타 다카아키 씨 각각 수상

2015년 노벨상 수상자로 생리의학상에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기타사토대학(北里大学) 특별 명예교수가, 물리학상에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도쿄대학(東京大学) 우주선연구소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인 수상자는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3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총 24명이다.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수상연도	이름	수상분야
1949년	유키와 히데키(湯川秀樹)	물리학상
1965년	도모나가 신이치로(朝永振一郎)	물리학상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문학상
1973년	에사키 레오나(江崎玲於奈)	물리학상
1974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평화상
1981년	후쿠이 겐이치(福井謙一)	화학상
1987년	도네가와 스스무(利根川進)	생리의학상
1994년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문학상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	화학상
2001년	노요리 료지(野依良治)	화학상
2002년	고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	물리학상
2002년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	화학상
2008년	난부 요이치로(南部陽一郎)	물리학상
2008년	고바야시 마코토(小林誠)	물리학상
2008년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물리학상
2008년	시모무라 오사무(下村脩)	화학상
2010년	스즈키 아키라(鈴木章)	화학상
2010년	네기시 에이이치(根岸英一)	화학상
2012년	아미나카 신야(山中伸弥)	생리의학상
2014년	아카사키 이시무(赤崎勇)	물리학상
2014년	아마노 히로시(天野浩)	물리학상
2014년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물리학상
2015년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생리의학상
2015년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물리학상

* 난부 요이치로, 나카무라 슈지: 국적미국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에 대한 내각총리대신 코멘트

오무라 사토시 기타사토대학 특별명예교수에게 올해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결정되었다. 일본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는 동시에 오무라 교수의 업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번 수상은 기생충 감염증에 관한 획기적인 치료법 관련 업적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일본인 연구자의 독창적인 발상에 따른 진리 발견이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해 세계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을 일본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정부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지원하는 한편, 연구를 담당할 인재 육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2015년 10월 5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대한 내각총리대신 코멘트

가지타 다카아키 도쿄대학 우주선연구소장에게 올해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이 결정되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이번 수상은 가지타 씨의 뉴트리노(neutrino) 진동의 발견 관련 업적에 주어지는 것이다. 가지타 씨의 업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의 연구자가 우주를 이루는 기본원리를 밝히는 데 고매히 참여하여, 인류 공통의 지적 자산인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어제의 생리의학상 수상에 이어 각 분야에서 일본의 탁월한 연구역량이 세계의 평가를 받은 것이 국민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 앞으로도 폭넓은 기초연구 지원을 추진하여 세계로 비약하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인재육성에 임하겠다.

2015년 10월 6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2016년도 JET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유치 사업)은 일본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의 충실 및 청년교류에 의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외국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ET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라 한다)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단체'라 한다)이 실시하고 있다.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www.kr.emb-japan.go.jp>

1. 모집직종

(1)국제교류원(CIR)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행정부문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2)외국어 지도 조수(ALT) 어학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2. 시험응모와 실시방법

(1)선고방법 JET프로그램 선고 시험은 '스크리닝 시험(필기시험, 이하 '제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류·면접시험(이하 '제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2) 제1차 시험

1) 원서교부

- 양식 다운로드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방문수령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각 대학 일본어과 사무실 등에서 교부.

2) 원서접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 프로그램 담당자 앞.

※접수 후 수험표 및 시험안내문 배부

-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 방문접수 10월 6일(화)~10월 30일(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업무 시간 월~금 (10:00~12:30

13:30~17:30), 휴관일 제외.

• 우편접수 10월 6일(화)~10월 30일(금) 소인
까지만 유효 등기에 한함.

'JET프로그램 응모서류' 라고 명기할 것.

※우편 접수는 본인의 주소와 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우편봉투(우체국 규격봉투)를 동봉할 것.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는 우편요금에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할 것.

(3) 응모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응모원서 원본 1부, 수험표(2장 1set) 1부, 사진 원본 3매를 응모용지 및 수험표에 부착할 것.

※응모원서 작성에서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진은 가로×세로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컬러프린트 불가)

2) 일본어성적표 제출 (복사본 가능, 합격증 제출은 필요 없음)

JLPT N1 성적표 (2010년도 실시한 시험부터 현재까지의 것)

※공무원 및 교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소속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4) 시험 출제형식 및 출제범위

1차 시험의 출제형식은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이고 출제내용은 한국어·한국사정, 일본사정.

(5) 시험 일정 11월 8일(일) 14:00~16:00 / 한

JET프로그램 경험담

박은영 JET 15기

2007년 4월 ~ 2012년 3월 기고시마현 가노마시정, 아카타마 다이센시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2년 3월까지 JET프로그램을 통해 가고시마현 가노마시정, 아카타마 다이센시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에게 JET는 통번역, 국제교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부터 시장농민이나 지사 등 일본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본을 느껴볼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고 싶었고 JET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들은 인구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들이었는데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 일본의 지역문화는 배운 것도 매우 못 같습니다. 특히 3.11 동일본 대지진을 동북지역에서 직접 겪으면서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JET를 통해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은 인생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유치 사업)

국제교류원(CIR) :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행정부문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외국어 지도 조수(ALT) : 어학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어·한국사정, 일본사정(입실은 13:40 까지 완료할 것)

(6) 시험 장소 서울, 제주

• 서울 :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길 4 / 지하철 3호선 : 안국역 1번 출구)

제주 이외 거주자(제주시험장에 해당하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서울시험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

• 제주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8층)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제주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로, 제주회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

(7) 합격 통지

1차 선고의 합격 여부는 2015년 12월 초·중순 사이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2016년 1월 초순부터 1월 중순 지정한 날에,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한다(제2차 시험의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한다. 동시에 제2차 시험 실시를 위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지시한다).

일본문화원 리porter 일본 현지 취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지난 8월 ‘일본문화원 리porter’를 모집하여 이 가운데 1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다양한 재능과 매력을 가진 일본문화원 리porter들은 앞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하고 후원하는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심층적으로 일본문화를 취재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9월 26일(토)~27일(일) 도쿄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Tokyo’의 부스 운영 및 현지 취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호에서는 일본문화원 리porter가 직접 참여하는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Tokyo’ 관련 소식과 체험담을 소개한다. 앞으로 일본문화원 리porter의 활약은 본지는 물론 일본문화원 리porter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일본문화원 리porter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bunkainreporter>

맛들면 정 든다... 축제로 하나 된 한국과 일본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박태일

“둘 중에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도시락을 먹다가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 부스의 일본인 자원봉사자 친구가 씨익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서로 각자의 얘기를 술술 풀어냈다. 부스에서 사온 떡볶이도 나눠 먹었고 몇몇은 연락처를 주고 받기까지 했다.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니, 여태껏 몰랐던 일본의 모습은 이렇게나 다정다감했다.

사실 나는 이번 일본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걱정이 많았다. 일본어 실력이 결음마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 부스를 운영할 때 말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전통의상 시착 도우미를 맡았고, 시착을 도와주는 동안에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이렇게 데면데면 했던 나를 바꿔준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먼저 같이 놀자고 손잡아 주고, 한국을 좋아한다며 먼저 한국어로 말도 걸어주고... 언어실력이 나 양국 관계의 부침(浮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한 공간에서 즐거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했다. 같이 부스를 운영했던 봉사자 중에는 왕복 차비만 수십만 원이 드는 돗토리현(鳥取県)에서 달려온 친구도 있었다. 내년엔 서울로 공부하러 온다는 친구와는 흥대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준 것은 ‘음악’이었다. K-POP 콘서트에 열광하는 일본 한류 팬들은 물론이고, K-POP 콘테스트에 나와 한국어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더 흥분한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축제가 끝나고, 내년에도 만나자며 박수를 칠 때 몽클했던 것도 역시 함께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직업이 기자다 보니 평소에 일본에 대해 안 좋은 뉴스만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위 ‘해جت거리’가 되는 건, 그런 소식들이기 때문이다. 이 축제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국관계가 더 나빠질 일만 남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답은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만 나오는 것이었다. 축제를 즐기며 동시에 가능성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즐거워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보며, 이 소중한 교류의 불씨를 잘 가꿔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년 축제에도 더 큰 불꽃이 한국과 일본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일본 3대 온천, 구사쓰 온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부 김재영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Tokyo’에 참가한 다음날 우린 군마현(群馬県) 북서부에 위치한 구사쓰(草津)를 방문했다.

구사쓰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게로(下呂)온천, 아리마(有馬)온천과 함께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로 손꼽힌다. 도쿄(東京)에서 열차로 가면 불과 3시간 안에 도착하고, 신주쿠(新宿)역에서는 편리한 직통 고속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온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구사쓰는 ‘구사쓰 국제스키장(草津国際スキー場)’과도 인접하여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난 뒤, 온천을 즐기는 관광객도 많다.

중심부에는 관광 명소가 밀집해 있는데, 구사쓰 온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바타케(湯畑)’ 또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구사쓰 온천은 풍부한 온천 원천수 유출량과 산성도 2.1pH의 살균력이 뛰어난 온천 수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하지만 온천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온천수는 너무 뜨거워 바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온천수를 나무통에 흘려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이 바로 유바타케다. 유바타케가 있는 언덕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다양한 가게와 전통 가옥, 숙박시설이 마을을 이루고 있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색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유바타케의 온천수가 내뿜는 연기는 뭉게구름 같은 장관을 이루고, 주변에는 산책길과 족욕탕이 마련돼 있어 우리는 가을의 청명한 십오야 밝은 달 아래 족욕을 즐기고 주변을 산책하며 구사쓰를 만끽했다. 에메랄드빛 온천수가 흐르는 유바타케의 낮 풍경은 지난밤과 사뭇 달라 구사쓰를 한번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 오묘한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

구사쓰 온천에 왔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구경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유모미(湯もみ) 쇼’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유모미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본문화원 리포터 중 몇몇은 소매를 걷어 붙이고 유모미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체험 후 주어지는 유모미 체험 증서는 잊지 못할 기념품이 되었다.

도쿄 속의 에도, 시간이 멈춘 거리 가와고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손진영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일본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일본의 매력을 찾아 보기 위해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번 프로그램 일정을 기획하고 실시한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公益財団法人 日韓文化交流基金)이 학생 신분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기회를 제공해 준 덕분에 다양한 일본문화를 배울 수 있어 행복했다.

우리는 도쿄 사이타마현(埼玉県) 남부에 위치한 가와고에(川越)를 방문했다. 이곳은 과거 에도(江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리로 유명하다. 현대식 건물과는 사뭇 다른 전통가옥이 거리를 따라 즐비했다. 화려하다기보다 아기자기하고 손때 묻은 옛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기념품과 소박한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가와고에의 상징인 ‘도키노가네(時の鐘)’라는 시계탑은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목조로 구성된 종루로 가와고에시(市) 지정문화재다. 지금도 하루에 총4회(6시, 정오, 15시, 18시), 시간마다 종을 친다고 한다. 우리는 가와고에 한 골목에 위치한 전통의상대여점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인 ‘유카타(浴衣)’를 직접 입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유카타가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었고 허리띠(오비), 머리장식, 가방 등 장식품도 구비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어울리는 유카타를 입고 고에도(古江戸) 거리를 거닐었다. 마치 에도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관광객에게 옛 향취를 느끼게 했다. 그만큼 에도의 거리를 지금까지 잘 지켜 온 것 같다.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니는 일본문화원 리포터에게 현지 일본 분들에게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가와고에를 찾은 내국인에게도 가와고에는 생소하고 진기(珍奇)한 경험이었을까. 마치 우리가 전주나 복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옛 일본의 거리를 걸고 싶다면, 전통 의상을 입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아련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가와고에를 방문해 보길 권한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일본가요대회의 축하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사키 에리(佐々木恵梨) 씨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국은 처음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4년전 친구들과 관광차 왔어요. 다들 해외에 가본 적이 없던 대학시절 ‘해외에 한번 가볼까’ 하는 기분에 왔었죠. 명동을 둘러보고 불고기도 먹고, 때도 밀고 난타를 보는 일반적인 코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어떤가요.

불고기나 미용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화장품도 다양하게 팔고 있어서 선물로 사 갈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클래식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배웠다고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려고 마음 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명확하게 이거다 싶은 건 없었지만, 취업시즌이 되어 다들 직장을 구하려 노력할 때 ‘나는 취직은 무리야,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원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 학부를 고를 때 음대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택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마음껏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걸 연구해도 괜찮은 학부를 선택했죠. 거기서 음악을 연구하고 졸업논문도 작사 등에 대해 썼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음악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들 취업활동을 할 때 오디션을 본거죠.

대학 졸업 후 악곡을 제공하는 등 음악활동을 계속 하다가, 올 5월 ‘플라스틱 메모리즈’의 주제가 ‘Ring of Fortune’로 데뷔하셨죠. 데뷔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인가요.

계기는 오디션이었어요. 원래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슈타인즈 게이트’ 등의 작품을 담당한 하야시 나오타카 씨가 시나리

한국은初めてでしょうか.

2回目です。4年ぐらい前、友達と観光できました。海外に行ったこともなかった大学生の時に「海外へ行ってみようかな」という感じでできました。明洞を見て焼肉食べて垢すり行ってナンタをみるという王道コースでした。

韓国に対する印象はいかがですか。

焼肉と美容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ね。コスメとかもいろいろ売っているので土産として買って帰ろうと思っています。

幼い頃からクラシック・バイオリンやピアノを習っておられたと伺いましたが、本格的に音楽の道を志したきっかけはありましたか。

明確にこれというきっかけはありませんが、就活の時期になってみんなが就職して頑張っていく中、「私は就職は無理だろうな、したくないな」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また、元々音楽がすごく好きだったので、大学の学部を選ぶときも、音大はクラシックの人が行くイメージだったので選びませんでした。私は音楽を好きにやり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ので、何を研究してもいい学部を選択しました。そこで音楽を研究し、卒論も作詞などについて書いています。明確ではないけれど、どこかでずっと音楽をしていきたい気持ちがあつて、周りが就職活動をする中、私は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ていました。

大学卒業後、楽曲提供等を行いつつ音楽活動を続けられ、今年5月にプラスチック・メモリーズの主題歌「Ring of Fortune」でデビューされました。デビューのきっかけ等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きっかけはオーディションですね。元々アニメを見るのが好きだったので、[STEINS;GATE]等のシナリオを担当された林直孝さんがシナリオを書

오를 쓴 ‘플라스틱 메모리즈’라는 애니메이션 곡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때 ‘정말 좋아. 이 작품’ 이다 싶어서, 우선 곡 모집에 응모했지만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후 가수 모집이 시작되어 오디션을 봤더니 합격이었어요. 설마! 싶었습니다.

이 감독, 이 작품이라면 노래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노래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나요.

원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시절 밴드와 보컬도 하고, 코러스도 했어요.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를 비롯해서, 단발성 이벤트에 나가는 등 노래에 관한 일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제가 앞에 나서서 ‘데뷔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계속 노래가 좋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이 있으면 보려고 했어요. 때마침 플라스틱 메모리즈가 계기가 된 셈이죠.

주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데, 역시 취미의 영향이 큰가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감각과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감각이 전부 같아요.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좋아해서 이야기 책을 자주 읽죠. 음악도 ‘난, 이걸 전하고 싶어!’라는 마음보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음악이나 세계관을 연출해가는 작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가운데 좋아하는 작품이 있나요.

조조나 코드기어스, 음악도 포함해서 마크로스 시리즈 등 화제가 된 작품은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소설도 읽어요. 댄 브라운이라든가.

음악활동은 하면서 유념하고 있거나 지향점 같은 게 있나요.

작사할 때도 캐릭터 송을 쓰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 세계관에 맞을지, 어떻게 하면 캐릭터가 귀엽거나 멋지게 보일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듣는 이가 그 작품에 빠질 수 있는지를 특히 잘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처럼 작가 일도 많이 할 예정이고, 제가 부르는 노래도 아마 늘어날 듯 합니다. 라이브 등의 연출이나 콘서트 연출 같은 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즐겁습시다.

앞으로 앨범이 나올 예정은 있나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가수가 부른 주제가 모음집 ‘Rejet Sound Collection vol.2 〈LOVE GEYSER〉’가 9월에 나왔습시다.

かれるプラスチック・メモリーズというアニメで曲の募集をしているとの連絡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した。その時に、「絶対好きだ、この作品」と思い、まず曲の募集にエントリーしましたが、落ちてしまいました。ただ、その後に歌手の募集が始まり、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たところ合格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さか!という感じでしたね。

その監督、その作品があったから、歌いたいと思った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元々歌いたいという意志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元々歌がすごく好きで大学生のときからバンドやボーカルをやったり、コーラスをやったりしていました。アイドルマスター・シリーズをはじめ、単発でイベントに出るなど歌に関する仕事もできていたので、あまり私が前に出て「デビューしてやる!」と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ただ、ずっと好きで歌いたいとは思っていたので、オーディションがあれば受けよう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した。たまたまプラスチック・メモリーズがきっかけになった形です。

アニメの分野で主に活躍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が、やはり趣味の影響も大きいのでしょうか。

私はアニメを見る感覚とドラマや映画を見る感覚は全て同じなのですが、私はシナリオが面白いものが好きで、物語をよく読みます。音楽についても「私、これを伝えたいの!」というよりも、何かシナリオのようなものがあって、それに付随する音楽とか世界観を演出していく作業が好きなんです。だから、こういう音楽活動ができるのはすごく嬉しいし、やりたいことでもあります。

アニメ、マンガ、小説で好きな作品はありますか。

ジョジョやコードギアス、音楽も含めて、マクロスシリーズなど、話題になったものは色々見ていると思います。小説も読みます。ダンブラウンとか。

音楽活動される上で心がけていること、モットーなどがございましたら、教えてください。

作詞するときも、キャラクターソングを書くことが多いのでどうやったらその世界観に合うか、どうやったらそのキャラクターがかわいく、または格好よく見えるか、そういうところに気を遣っています。聞き手がその作品にはまるかどうかを特によく考えています。

今後の活動は。

今までどおりに作家業もたくさんやらせていただく予定ですし、自分が歌曲も恐らく増えてくると思います。ライブなどの演出、コンサートの演出のような仕事も今進めていて、すごく楽しんでやっています。

今後のリリースの予定は。

私を含むたくさんの歌手による主題歌集『Rejet Sound Collection vol.2 「LOVE GEYSER」』が9月30日に出了た。

Chihiro Yamazaki + ROUTE14band 첫 내한공연 밤하늘의 트럼펫

일본의 스타일리쉬 팝재즈 밴드 Chihiro Yamazaki+ROUTE14band의 첫 내한공연이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다. 여성 트럼페터 야마자키 치히로를 중심으로 야마시타 사토시(Drums), 야마모토 고지(Bass), 다카미 하나(Keyboards), 미즈(Guitar)가 2010년 결성한 일본의 5인조 인스트루멘탈 팝재즈 밴드로서 재즈, 팝, 클래식, 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한다. 유료공연.

일시 10월 24일(토) 18:00~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주최 지누락엔터테인먼트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지누락엔터테인먼트 02-337-3103



2015 전국고등학생 일본어말하기대회를 마치고

지난 9월 5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2015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영남지역과 제주도 제외) 예선을 거친 21명이 본선에 출전했으며, 많은 참가자들의 멋진 스피치 가운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전도영 학생이 우승했다. 전도영 학생은 자신이 찾았던 일본지방의 매력을 현지인이나 고교생과의 교류를 통해 느꼈던 마음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실감나게 발표했다.

이번 우승으로 얻은 일본연수의 기회를 통해 일본지방의 매력을 더욱 느끼고, 앞으로 양국 교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10월, 11월 일본영화상영회 아홉 가지 사랑이야기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가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선착순 무료관람

■ 새 구두를 사아해 新しい靴を買わなくちゃ

일시 10월 27일(화), 11월 25일(수)

감독 기타가와 에리코

■ 사랑에 빠진 것처럼 ライク・サムワン・イン・ラブ

일시 10월 28일(수), 11월 26일(목)

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 고스트:보이지 않는 사랑

고스트 もういちど抱きしめたい

일시 10월 29일(목)

감독 오타니 다로

■ 첫사랑 初恋

일시 10월 30일(금)

감독 하나와 유키나리

■ 좋아해 好きだ

일시 11월 6일(금)

감독 이시카와 히로시

■ 무지개여신 虹の女神

일시 11월 10일(화)

감독 구마자와 나오토

■ 하프웨이 ハルフウェイ

일시 11월 17일(화)

감독 기타가와 에리코

■ 냉정과 열정 사이 冷静と情熱のあいだ

일시 11월 19일(목)

감독 나카에 이사무

■ 사요나라 이츠카 サヨナライツカ

일시 11월 24일(화)

감독 존 재한 리

제4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가 오는 11월 21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2012년 일본관련학과 대학생간의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지난 세 번의 대회 동안 참가한 모든 팀이 기대 이상의 수준 높은 연기력과 일본어 구사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갈채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군산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단국대학교(이상 출전순)가 본선에 진출해 그 동안 갖고 닦은 일본어 실력과 연기력을 겨룬다.

일시 11월 21일(토)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53, 123, 120)



제11회 한일 교류 말하기대회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경험, 상황 등을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일본어로, 일본어 모국어 사용자는 한국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한일 교류 말하기대회 본선이 11월 28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는 11월 20일 관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 예정이다.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권, 방일 프로그램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본선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토) 14:00~16:3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AA대한민국지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협력 및 후원 : Seoul Japan Club,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Inpainter Global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40),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관련 홈페이지 주한일본대사관 www.kr.emb-japan.go.jp

JETAA 대한민국지부 공식커뮤니티 cafe.daum.net/jetprogramme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www.clair.or.kr

예선 응모 원고 마감 10월 31일(토)

주제 주제는 자유나 정치, 사상, 종교적인 내용 제외 (예)자국(일본, 한국)문화 소개하기, 상대국(일본, 한국) 문화에서 배울 점 등.

분량 말하기 3분 내외 (약 1,000자 내외)

자격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본어 모국어 사용자는 한국어,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모방법 : 관련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접수(jetaakorea@gmail.com).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 실시요령 참조.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